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

지역을 밝히는 또 하나의 에너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충북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진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가 그 주인공.

현재 음성군에 고효율·스마트 발전소를 건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이곳은 단순 기부를 넘어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백년의 미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아동·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환경보호 활동 등 주인의 입장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지역과의 따뜻한 동행을 설계해 사회적 책임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 김동현 본부장을 만나 진정한 있는 상생철학과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발전시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현안과 요구를 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고 '지역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의 현실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구체화 한 결과이기도 하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지역민의 일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건강식품을 지원했다.

자원순환·에너지복지·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진 상생 실현 일회성 아닌 지속형 사회공헌으로 신뢰 쌓은 '음성건설본부'

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명절 맞이 취약계층 선물 지원과 자매결연 '마음잇기'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백년의 미소' 장수사진 촬영 사업으로 지역사회

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임직원 헌혈 릴레이 등을 통해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지원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단순 후원을 지양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최적화 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에너지 복지 등 지역의 당면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활동

의 기저에는 진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청소년 성장 지원, 지역 생활여건 개선 기여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경로당 및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아동의 문화 체험 지원 등 일상 밀착형 활동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활동 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하는 지점이었다.

지원 영역이 복지, 교육, 환경 등으로 광범위한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급변하는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난관을 지자체 및 복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정면 돌파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선 공공가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소감은?

이번 인정기업 선정은 그간 음성건설본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는 단순히 기업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작은 나눔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일상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에너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음성건설본부는 '동행(同行)'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체감형 사회공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화 문화 사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업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자원 절약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보호 프로그램과 전통시장 지원을 꾸준히 전개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청북도 내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종사자 단체사진.

충북광역푸드뱅크, 이관실적 '전국 1위'

2025년 기부식품 등 이관금액 93억원 상당 지원

충북광역푸드뱅크(회장 유응모)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 93억원 상당을 도내 11개 시·군 29곳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관금액은 2025년 충청북도 전체 기부식품등 제공금액 157억원 중 약 60%의 해당하는 수치로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한 기부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1만 8079명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한편, 충북광역푸드뱅크는 작년 3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803㎡(242평) 규모로 개소하여 기부 물품 입·출고에 필요한 지게차, 팹트랙 등의 물류설비를 포함해 전담인력까지 증원했다.

특히, 물류센터 개소 직전년도 대비 기부물품 이관금액이 약 21억원(30%)가량 증가하고, 전국 17개 광역푸드뱅크 중 이관금액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국푸드뱅크 지원으로 긴급 지원대상자 총 500명을 발굴하여 이며 전신 푸드팩(간편식)을 지원하였고, 음성군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지역 긴급대피 주민 700가구에도 간편식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혹서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물품이 담긴 키트를 푸드뱅크 이용 대상 3474가구에 전달했으며, 영양 섭취 불균형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2620가구에 친환경 농산물 등이 담긴 신선식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응모 회장은 "충청북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복지 제강 정도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역푸드뱅크는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년고용률 73.5%... 2543명 순유입

청년 유입 늘고 고용률도 상승... 수도권 추월

충북도는 전국 청년고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20세부터 39세의 청년 고용률에서 충북은 73.5%를 기록해 수도권(71.6%)을 앞지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충북의 청년고용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70.1%, 2023년 71.4%를 거쳐 지난해 73.5%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인구 흐름도 개선됐다. 2024년 1374명 순유출에서 지난해 2543명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10년 만에 최대 순

유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광·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충북형 청년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실무 인재 양성과 취업 매칭, 주거비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이 지역 정착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날 단담회에서 "전국적인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도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어르신 '추석맞이 나눔'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음성향애원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과 공연, 환경정화 봉사 및 아동용 물품·간식을 지원했다.



제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모금금액

25,145 백만원

2025년 지원금액

32,152 백만원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노인	사업 분야	기초생계	교육/지원
	5,931백만원	6,065백만원		15,526백만원	1,689백만원
	장애인	여성/다문화		주거/환경	보건/의료
	1,993백만원	1,346백만원		6,089백만원	968백만원
	위기가정	지역사회		상리/정서	사회적돌봄강화
	3,029백만원	13,772백만원		826백만원	4,385백만원
	해외/북한			소통/참여확대	문화적자혜소
	16백만원			76백만원	837백만원
				재난재해/기후위기대응	
				76백만원	

사랑의열매는 기부자의 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해당 지원내역은 2025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32,152백만원으로 충북도 내 3,000여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26,593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지원 상담 043-238-9200 ARS 060-700-0008(한통에 2천원)

단양군, 건강검진센터 건립... 내년 하반기 개원

5대 암 검진 가능, 사업비 73억원 투입

단양군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단양읍 삼봉로 53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총 73억원이 투입돼 짓는 센터는 내년 하반기쯤 개원하고, 암 검진 등의 의료 장비 등을 갖춘다.

현재 단양군에는 건강검진 기관이 단 한 곳뿐인데 이마저도 일반 진료와 함께 운영되며 별도의 예약 시스템이 없어 길고 복잡한 대기 시간과 혼잡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 지사와 협력해 출장 검진을 시행 중이나 최근 검진 시작 한 시간도 안 돼 접수가 끝나는 등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이동식 검진 차량의 높은 계단은 고령자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엑스레이 촬영 같은 필수 검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군 보건의료원은 새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통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 선착순 접수로 인한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최첨단 검진 장비와 무장에 동선을 갖춰 고령화되는 주민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출장검진 형태를 넘어 연중 상시 검진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적기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과



단양군보건의료원 전경.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다 돌아가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건강검진

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 완화

1억원 투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음성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가정에

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음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이다. 소득기준 초과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표준형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

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043-872-2173)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산모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 AI 반려로봇 ‘다솜 K’로 스마트 돌봄

100대 교체... 영상 모니터링, 응급 호출 서비스

충주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반려로봇 장비를 전면 고도화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로봇 노후화에 따른 기능 업데이트의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00대를 새 모델로 교체할 계획이다.

새 반려로봇 ‘다솜 K’는 기존 정서 지원 기능은 물론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위급 상황 시 보호자와 관제센터에 응급 호출을 연결하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교육, 영상통화와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안부 확인 등의 기능을 갖췄다. 특히 영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식회사 더플플랫폼과 협력해 홀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맡겨져 되주고 생활 교육, 실시간 안부 확인, 응급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로봇을 보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 돌봄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촘촘한 밀착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반려로봇 ‘다솜 K’를 사용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진천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본격 추진

우석대 학생 2100명에 아침제공 목표

진천군은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2100명에게 1000원에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사업에 총 10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사업 시작을 기념해 열린 현장 방문 행사에서는 전도성 진천 부군수가 직접 배식에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식비 부담으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렴한 가격에 든

든한 식사를 할 수 있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내실화, 식단 품질 관리, 홍보 강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청년특화 ‘청년창업지원센터’ 시범운영

창업공간·문화시설 결합 플랫폼... 전체 준공 5월 예정



청주시는 시 관계자 및 입주청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입주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주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시설인 청년창업지원센터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에 앞서 시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입주 청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장 운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당구 영동 104-13에 조성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공간을 비롯해 청소년공간, 문화소극장, 문화마당, 휴게·전시공간, 로컬창업타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창업·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로컬창업타운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운영을 맡아 오는

5월부터 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4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을 거쳐 이달 내부공사를 완료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맞춤 제작이 필요한 특수 설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 및 시운전 절차를 거쳐 각각 4월 말과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 청년으로 선정된 이소연 담당주스 대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가족이 함께 찾는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시장은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소나무길과 성안길을 연결하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선정

총 30억원 투입... 한방 엑스포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제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역 특화 산업인 ‘한방 천연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지는 관찰과 실험 놀이터’를 콘셉트로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콘텐츠로는 생명의 기초 원리를 체험하며 배우는 ‘알송달 송 생명 보따리’, 개미집 미로 등 생태계 공존을 체험하는 ‘응기종

기 비밀 정원’, 식물원에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속닥속닥 초록 아지트’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투입한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기존 ‘약초 허브식물원’을 어린이 전용 과학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오는 202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인 한방엑스포공원은 한방생명과과학관, 안전

체험관 등 인근 교육체험 시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천 나들목(IC)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단양, 충주, 영월, 원주 등 중부내륙인접 시군 어린이까지 아우르는 과학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한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어린이들이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세계적 즐길 수 있는 제천만의 차별화된 과학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보은군, 복지·교육 거점 ‘이음센터’ 준공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공간

보은군은 15일 보은읍 죽전리 일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청년 지원 기능을 통합한 ‘보은군 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아동·청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보은군 이음센터는 세대 간 소통과 성장을 목표로 조성된 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이다.

총사업비 24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 군비 6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55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원어민 영어교육센터, 2·3층 평생학습관(문화·취미·자격 과정), 4층 청년센터(창업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이용 대상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군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



보은군은 복지·교육·청년 지원 기능을 통합한 ‘보은군 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까지 임시 운영을 통해 시설 체계를 점검하고 5월 16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5월 초부터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와 시설 안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음센터는 세대별 다양한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342억 투입해 취업자 2만 8000명 달성 추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고용 기회 확대

영동군은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3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자 2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이 수립한 2026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약 140억원과 지방비 약 190억원을 포함해 총 342억원이 투입된다. 목표는 고용률 73.5%, 취업자 수 2만 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영동군 고용률은 73.1%, 취업자 수는 2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고용률을 0.4% 높이고 취업자 수 1000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청년고용률은 34.7%에서 35.5%로, 여성고용률은 70.8%에서 71.5%로 각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8000명에서 8100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는 9102명에서 9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안정망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창업 지원과 임차료 보조, 취업 지원수당, 면접 정장 대여 등 취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까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과 주요 관광지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계절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영동군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고용지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희망자 접수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등 20% 추가 지원

영동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 30대의 전기이륜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으로 일반 21대, 배달용 6대, 우선순위 대상 3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와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등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에는 최대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안내 포스터.

기간 내 판매·폐차 시 보조금 환수 등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과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 시범 운영

목표 달성 시 5만원 현금·스마트 워치 등 현물 지원

괴산군은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사업 참여자 25명을 선발했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참여자는 걷기, 자전거, 휠체어 타기, 요가 등 신체활동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매월 5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1회에 한해 스마트워치 등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과를 분석해 맞춤형 복지

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관내 모든 어린이집 친환경 쌀 공급

단순한 급식 지원 넘어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옥천군은 4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쌀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일부 어린이집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미공급 시설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군은 공공급식 지원 체계를 통해 월 730kg 규모의 친환경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

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식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되는 쌀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지역산 친환경쌀로 공공급식센터에서 검수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식재료 수급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유정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지속 확대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학교급식 등으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며 지역 먹거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 식생활 지원 강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월 10만원 바우처 카드 제공

옥천군은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사용처로 등록돼 본격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충전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자는 해당 카드를 통해 과일, 채소, 잡곡, 두부 등 국산 농산물 중심의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 외 상품은 별도 결제가 필요하다.

이번에 사용처로 등록된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출하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바우처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68억 투입 ‘청년정책’ 33개 사업 박차

취·창업·주거안정·권익증진 등 4개 분야

증평군은 ‘청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드는 도시’를 비전으로 4개 분야, 33개 세부 사업이 담긴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13일 수립했다.

군은 지난 3월 말 기준 청년(18~39세) 인구 비율이 23.5%로 도내 2위, 전국 군 단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5.3건)은 충북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

기반이 탄탄한 ‘젊은 도시’로 꼽힌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군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및 근로 활동 지원 등 일자리 분야 8개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 분야 5개 사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청년 네트워크 활성

화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행정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강전 미루나무숲 버스킹, 1인 창작 스튜디오 운영과 더불어 현재 건립 중인 복합문화예술회관을 통해 청년 문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을 정책으로 해소하고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N

충북사회복지사업의회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대리 (T.043-234-0840~2)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

취약계층에 최대 60만원

정부는 중증전장발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수도권 기준 45~55만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까지 차등화된 금액을 받게 된다.

지급 절차는 4월 2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부터 시작된다. 일반 국민 70%가 포함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반의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5월 18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이나 카드형은 지자체 앱·누리집에서,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혹은 다음 날 수령 가능하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수도권	소득하위 70% 이하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우대)			
인구감소(특별)			
2 신청 및 지급 기간			
3 사용 기한			
4 지급 수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며, 온라인은 24시간, 오프라인은 영업시간 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 시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감소

일부 보조기기 건강보험 90%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다.

첫째,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준금액은 380만원이며 이 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둘째, 장애인용 유모차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체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몸통지지 보행차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2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3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그냥드림’ 사업 운영체계 재정비 추진

시범사업 성과 바탕, 5월 본사업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5월 18일부터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운영체계를 재정비 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

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차 이용에 한해 이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신청주의에 따른 서류 부담과 낙인효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국민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 그냥드림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7만 8251명을 지원했다. 이 중 7686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고 125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발생 등의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운영 체계와 이용 환경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판셋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업체어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그냥드림 사업장과 연계하고 ‘좋은 이웃들’과 같은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하여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운영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운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 확 낮춘다… 모두의 카드 ‘반값’ 혜택

9월까지 환급 기준액 50%로 낮춰 출퇴근 시간 이용 시 환급률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교통비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춰 이용자

들이 돌려받는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월 13만원 이용 시 기준금액 9만원을 초과한 4만원만 환급받았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4만 5000원으로 낮아지며 환급액은 8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에 대한 환급 혜택도 강화된다. 혼잡 분산을 위해 지정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

급률이 기존보다 30%포인트 추가된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다. 이에 따라 환급률은 일반 국민 20%에서 50%로, 청년은 30%에서 60%로,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까지 확대된다.

이번 모두의 카드 및 K-패스 혜택 확대에는 총 19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 ‘대표번호 개설’

6~12세 아동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법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

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6세에서 12세 초등

학생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도입 이후 두 달간 343개소의 밤 20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000명, 하루 평균 이용 아동은 1273명이다. 주간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밤 20시 이후까지 연장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97.8%이고, 일시·긴급하게 이용하는 아동은 두 달간 1016명이다.

누구나 국민 없이 번호(☎ 1522-1318)를 누르면 이용자 지역에 소재한 상담센터(17개 지역 아동센터 시도 지원단)로 자동 연

결되며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KB금융도 사회공헌으로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센터에 휴식·편의물품, 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약 17억원을 집행했다.

야간 연장돌봄 참여센터 343개소의 위치와 이용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돌봄시설 찾기 ▲

오전 10시 이후 시작, 오후 4시 이전 종료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유류비 상승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혼잡 시간대 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조정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사업(70만 9000명) 중 공공시설봉사 일부 사업단(28만 2000명)이며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은 공원·놀이터 등 야외 공

공시설 관리 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1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활동(09시~12시)은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고, 오후 활동(14시~17시)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여 혼잡 시간대인 출근시간(07시~09시)과 퇴근시간(17시~19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청주시 상당구 남성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을 안내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축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포상·홍보부스 운영

사단법인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변창수, 이하 연합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생명누리공원에서 제46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장애인복지향상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장애인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총 36개의 행사 참여부스가 마련됐다.

이날 1부 행사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인생 기록영상’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유공자 포상, 변창수 충청북도 장애인단체연합회장 기념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격려사,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축사 등이 이어졌다.



제46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유공자 포상은 안종태 충청북도 굿드리체육관장(대통령 표창), 양명규 청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구영모 충북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보와 민경은 이은학교 교사(교육부장관 표창) 등 총 31명이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한마음행사에서는 보조기기 체험과 장애인 인식

선 프로그램 등 40개의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장애인 10개 팀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 연주 등 장기자랑을 선보여 축제에 열기를 더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의 날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충북도는 장애인의 권익 보

장과 자립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변창수 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마켓 통합

통합형시설 개소, 본격 운영

식품 보관·관리 환경 개선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견용)는 음성군기초푸드뱅크가 ‘푸드뱅크·마켓 통합형’ 시설로 지난 2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기부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취약계층의 식품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소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의 참여와 지원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주식회사 고려주방 김시형 대표는 냉장·냉동 설비와 음료 진열대를 후원해 식품의 안전한 보관 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제이프로텍 주선웅 대표는 하이퍼 진열대를



음성군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 진열대.

지원해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광산전업사 신용식 대표는 전기공사를 맡아 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이처럼 다양한 민간 자원이 결합되면서 푸드뱅크·마켓은 보다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충북적십자사, 청주 가스폭발 피해 지원

맞춤 상담·심리 회복 도와

이재민 안정·조속 복귀 돕는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 이하 충북적십자사)는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14일부터 17일까지 피해 주민을 위한 물적·심리적 지원에 나섰다.

충북적십자사는 LP가스 폭발 사고 후 재난현장에 심리회복지원 인력을 투입해 재난으로 심리

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이재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충북적십자사는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재민의 정서가 안정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주시와 협력하여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재민대피소 2곳에 이재민헬터 32동, 응급 구호세트 32개와 담요 60개를 지원했다.

장현봉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펼쳤다.

도록 물적·심리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창간 80주년 쌀화환 기탁

도내 사회복지관 전달

무료급식 운영 등 사용

충청일보(회장 조승남)는 지난 달 30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에 백미 1740kg(54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 2월 27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청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축하 쌀 화환을 기부한 것으로 해당 물품은 충북사회복지관연합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관에 전달되어 무료급식 운영 및 복지관 이용 저소득 주민 지원에 사용된다.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인 충청일보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3년 창간 77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쌀화환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년간 공연티켓을 기부하는 등 문화복지 확산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승남 회장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사랑의 쌀 나눔’에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00년은 더 큰 책임의 시간인 만큼 속도보다 정확함을, 자극보



조승남(왼쪽) 충청일보 회장이 이민성 충북모금회장에게 54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다 신뢰를 앞세우며 지역과 함께 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민성 회장은 “충청일보 창간 기념식에서 받은 축하 쌀 화환을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 충북모금회에 전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

키며 지역과 함께해 온 지난 8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여 온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100년에도 충북모금회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강화

지정기탁 차량 지원 받아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석덕순)는 지난 6일 음성군청에서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주식회사 흥국에프엔비(대표 박철범)에서 후원금 3000만원을, 주식회사 땅스푸드(대표 김영국)에서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내 소통과 이동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차량은 지역 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방문 상담 및 이동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철범 대표는 “이번 차량 지원이 지역 내 장애인 가족들의 이동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일 음성군청에서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편의 향상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대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하

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덕순 센터장은 “귀한 차량을 전달해 주신 흥국에프엔비와 땅스푸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차량 지원 계기로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위한 방문 상담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돌봄의 방향이 바뀐다”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의 사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하루 평균 809명, 2주간 총 8905명이 접수되며 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확대를 보여준다.

다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전담 인력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사회적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뒷받침될 때,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혁신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전후 비교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 참여자가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담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 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은 우선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병원 입원 후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지체, 뇌병변 등)를 가진 장애인도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용방법 및 절차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

노인·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집에서 생활하는 복지 구현

서비스 연계 강화로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 부담 완화 기대

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하여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셋째,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실선 협의를 했다.

한편,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정부 및 지자체 준비상황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의 제도기반을 마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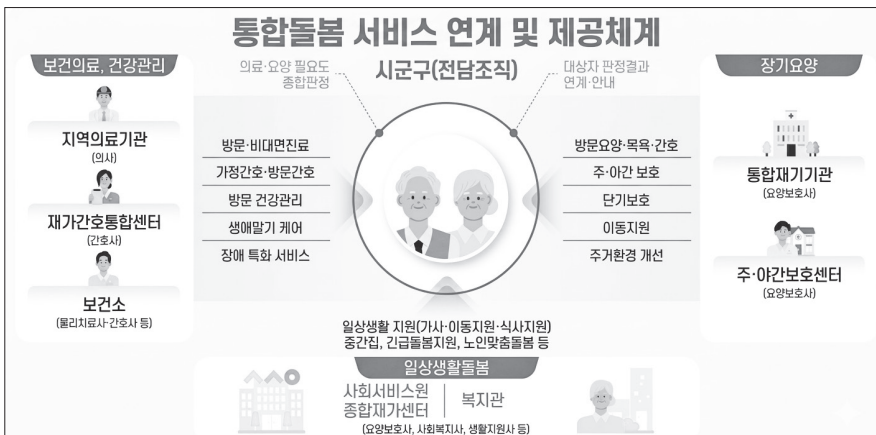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하여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서비스는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

2026년 편성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3월 11일 기준 총 5202명이다. 시군구 분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인데 비해,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 시행 초기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 인건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초기 전산시스템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민원 및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행복이음 고객센터(☎1566-3232)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통합돌봄 현황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가 늘어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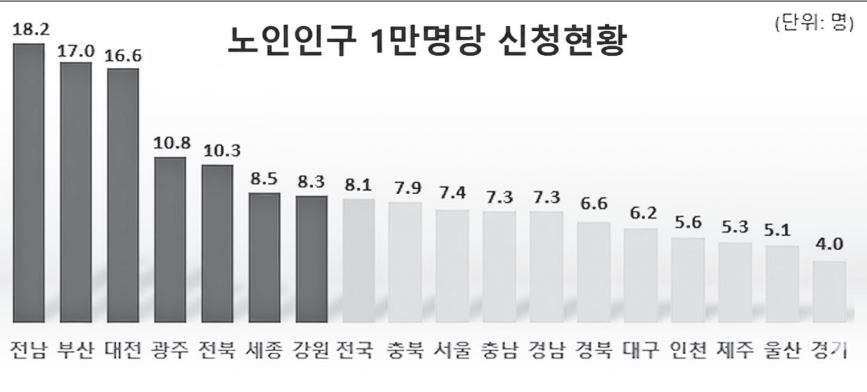
① 지역별 현황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112.5명, 전북 무주군 59.6명, 전남 담양군 48.4명, 광주 동구 47.8명, 전남 순천시 45.0명, 충북 단양군 42.4명, 부산 서구 36.6명, 경남 함안군 34.7명, 경남 의령군 29.8명, 경기 가평군 29.6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② 대상자별 현황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서비스 연계 현황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 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④ 사업운영 관리 상황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 및 이용 안내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전담부서

- 우선 또는 방문 문의 가능
- 개인별 맞춤 상담
- 서비스 신청 접수

2.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mohw.go.kr/integratedcare

- 구체적인 이용안내 제공
- 각 시군구별 서비스 메뉴판
- 전담부서 연락처 안내
- 각종 홍보자료 확인

QR 코드로 누리집 접속하기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김 미 연

행복한요양원 부장

추운 겨울, 한 어르신이 말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요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하나의 신호였다. 하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 말을 설득으로 덮어왔다. “날이 풀리는 봄날에 나들이 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 교육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가 들었던 그 요구는 우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그 이후 우리의 선택은 달라졌다. 나들이를 원하는 몇 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돌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밖으로 나가 함께 식사를 했다.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드신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었다.
“진짜로 데리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칼국수 진짜로 맛있어요.”
그 말 속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어르신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은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저 분이 자꾸 제 옷장을 뒤져요.”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지’였다. 문제 행동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옷장을 여셨던 어르신께 먼저 물었다.
“왜 자꾸 옷장을 보세요?”
“내 것이 잘 있나 궁금해서요.”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속 불안이었다. 무언가를 빼앗길까 걱정되는 마음, 자신의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대응도 달라졌다. 제지보다 안심이 먼저였다.
평범한 오후, 한 어르신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 이전 같았으면 지치고 답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것을.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

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천히 설명하고, 눈을 마주하며 안심을 전한다.
요양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보다 마음이 아파서 온 분들이 더 많다. 우울감과 외로움, 불안과 상실감 같은 감정이 삶의 후반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그 감정들은 때로는 같은 말의 반복으로, 혼란스러운 배회로, 혹은 방어적인 태도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행동을 ‘문제’로 바라보는 데 익숙했다. 빠르게 통제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돌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돌봄은 조금 다르다.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그 행동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먼저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돌봄이다.
물론 현실은 늘 이상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모든 어르신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신호를 놓치기도 하고, 감정이 지치는 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본다. 지금의 돌봄이 과연 어르신의 마음까지 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의 일을 식사 보

조나 신체 케어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르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돌보고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도록 돕고, 불안을 덜어주며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인권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어르신의 말을 요구가 아니라 신호로 듣는 것, 행동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 대신 안심을 건네는 것. 그 작은 태도가 인권이고 그 일상이 곧 존중이다.
요양원은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다. 또 하나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 안에서 어르신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한다.
돌봄은 특정 직종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어르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때, 요양원의 풍경도 함께 달라질 것이다.
돌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뉴얼과 절차는 필요하지만, 결국 어르신의 눈을 마주하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돌봄을 완성한다.
돌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도 요양 현장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어르신의 하루를 지켜내고 있다.

복지칼럼

봄나물



박 말 임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흑독한 겨울을 견뎌낸 사람일수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간절하다. 봄을 기다리는 생명이 어디 사람 뿐이라. 동절기를 견뎌낸 생명들이 화사한 봄 햇살이 반가워 초록빛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봄이 오는 길목에는 설렘이 먼저 도착한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마음속 그리움이 물결처럼 일렁인다. 그리움이란 사라진 것들의 다른 이름이다.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그리움이 되었고 그 그리움은 다시 추억을 불러들인다.
봄 향기는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힘이 있다. 냉이와 달래 향이 입안에 퍼지면 수십 년 전의 풍경이 순간에 계신 듯하고, 언니를 따라 발목에서 봄나물을 캐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하다. 내 어린 시절의 봄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봄꽃보다 봄나물이 먼저 봄을 알렸다. 햇살이 먼저 와 놀고 있던 발뚱, 눈두렁에서 봄나물은 땅을 헤집고 새봄을 알렸다.
쑥 올라온다고 해서 쑥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유난히 쑥국을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입맛을 닮아 나도 쑥국을 좋아한다. “쑥이 여자한테 제일 좋은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밤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쑥국을 먹는 봄이면 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 겨울 속 내모습은 점점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 새봄은 매년 다시 태어나 파릇파릇한 사람은 옛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입맛도, 외모도 변해간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봄나물의 깊은 맛을, 세월이 가르쳐 주었다. 달래향을 아는 사람은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봄나물은 유난히 흙이 깊어 박혀 썩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잘 씻지 않으면 먹을 때 흙이 씹힌다. 왜 그렇게 봄나물은 흙을 씻어내기가 어려울까를 생각하게 한다. 아마도 흙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생명들은 긴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연약한 풀 한 포기나 땅을 밟아 올라오는 힘은 겨울을 견디며 축적한 생명의 의지일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봄나

물이 보약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봄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꽃을 찾아 나선다. 매화가 향기를 흠뻑리고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날 때 봄은 절정에 이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했다. 며칠의 화려함 뒤에 꽃잎은 흩어지고 만다. 자연은 그 덧없음을 통해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꽃이 잠깐이기 때문에 더 눈부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큰오빠가 두 번째 허리 수술을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난 뒤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강한 진통제조차 별 효과 없었는지, “아버지!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절규하더라고요 했다. 그 곁을 지키던 막내오빠는 그 말을 전하다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막내오빠는 간병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장남인 큰오빠를 일찍 결혼시켰다. 땀나뭇물 해서 불을 때던 시절, 오빠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뒤뜰에 쌓았다. 봄이면 그의 나뭇짐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꽃혀 있었다. 오빠는 올케 손목을 끌고 뒤란으로 가 꽃가지를 쥐여 주곤 했다. 수줍게 물든던 언니 얼굴은 진달래보다 더 붉었다.
지금쯤 오빠는 봄벌이 드는 창가에 앉아 그 푸르렀던 시절을 꿈인 듯 되짚고 있을까. 산에 등잔불을 밝히듯 진달래가 피어나던 그 봄날은, 그의 생에서 가장 찬란한 계절이었으리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결국은 아쉬움 때문이다. 함께했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되살아난다. 인간은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기억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지만 기억은 계절을 만나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봄은 언제나 새봄이다.
나는 봄꽃보다 봄나물을 더 오래 바라본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오는 생명의 방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꽃이 피기 전에도 이미 삶은 자라고 있다. 겨울의 냉기를 견디며 땅속에서 숨을 고르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봄나물은 마침내 얼굴을 내밀 수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초록을 바라보며 다시 봄과 조우한다.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봄 블라우스를 꺼내듯,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봄벌의 따스함을 떠올린다. 삶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문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 봄나물의 향기를 몸에 채우는 일, 그 작은 일에서 봄은 시작된다.

현장의 목소리



권 명 지

경남리활비사 사회복지사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속에서 제천시의 어르신 돌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미 제천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돌봄의 질적, 양적 팽창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천지회 회원 23명은 일본 후쿠오카로 향했다.
일본 내에서도 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후쿠오카현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사회 전체가 개호(수발과 돌봄을 뜻하는 일본어, 介護)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왔다. 우

리 연수단은 일본의 앞선 시스템이 제천의 토양 위에서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2박 3일간의 짧지만 강렬한 일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인 후쿠오카현 가스가시의 ‘크로바 프라자’는 1996년 개관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이곳의 명칭은 남녀공동참여센터, 인권·인권정보센터, 종합복지센터라는 세 개의 핵심 기관이 마치 세요를 로버처럼 조화를 이룬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인권·인권정보센터를 둘러보며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정신이 단순히 문턱을 없애는 물리적 개조를 넘어 차별 없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임을 다시금 되새겼다.
특히 30년 전부터 자택 케어를 목표로 설계된 ‘생애안심주택’ 모델하우스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휠체어 보행을 위해 일본의 일반 주택 2배 면적으로 설계된 공간, 후쿠오카산 삼나무를 활용한 내진 설계 등은 지역 자원과 복지와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고령자 사고의 주요 원인인 ‘히트 쇼크(욕실과 실내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 난방을 채택한 점은 우리 온돌 문화의 우수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섬세한 배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이어진 ‘오이타현 사회복지개호연수센터’는 스마트 복지 기술의 요람이었

다. 침대 센서로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해 야간 업무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과 배설물 교체와 처리 장치는 일본의 철저한 대비 정신을 보여주었다. 1인 도움으로도 화장실 이용을 가능케 하는 로봇과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바뀌어 잠기는 휠체어 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도구였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어르신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활력을 복돋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여정인 주거형 노인홈 ‘사와야카 벳부노 사토’는 호텔급 환경을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력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도 공존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케어 기록을 실시간 데이터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생존을 넘어서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수에서 주목한 지점은 ‘행정 표준화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다. 투명한 전산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업무 편의를 넘어, 데이터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될 때 비로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투명한 돌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 현상이 인력 부족을 로봇 도입으로 타파하려는 모습에는 깊은 우려도 생겼다. 사회학자 우

에노 지즈코는 저서 ‘돌봄의 사회학’에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아무도 육아를 하는 로봇을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돌봄에는 로봇을 만들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돌봄의 성격을 무시한 것인 동시에 고령자 차별이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해본 결과, 결국 일하는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일손의 부담만 늘고 있다는 피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디지털화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서류 업무를 단축해 주지만, 데이터가 갈 수 없는 따뜻한 눈맞춤과 어르신의 깊은 고독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그것이 돌봄의 본질인 ‘사람 간의 소통’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다.
기술은 진화하되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종적인 힘은 정밀한 회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종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의 성찰을 바탕으로 제천의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한노협 제천지회가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기술이 어르신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연수에서 얻어온 진짜 숙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
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상가 임차인 A는 임대하려는 점포에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인수받아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의 비용으로 추가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했는데,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 B가 처음 인수 당시의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는 최초 준공 상태의 건물에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했다면 건물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인도받아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현재의 임차인이 직접 시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지 명확치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후속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씨의 경우처럼 직접 시설한 것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 받는 형식으로 동

일한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무를 자세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동정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 ▷ 회장 나윤서 / 4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 · 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안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착한미용실 이·미용봉사단,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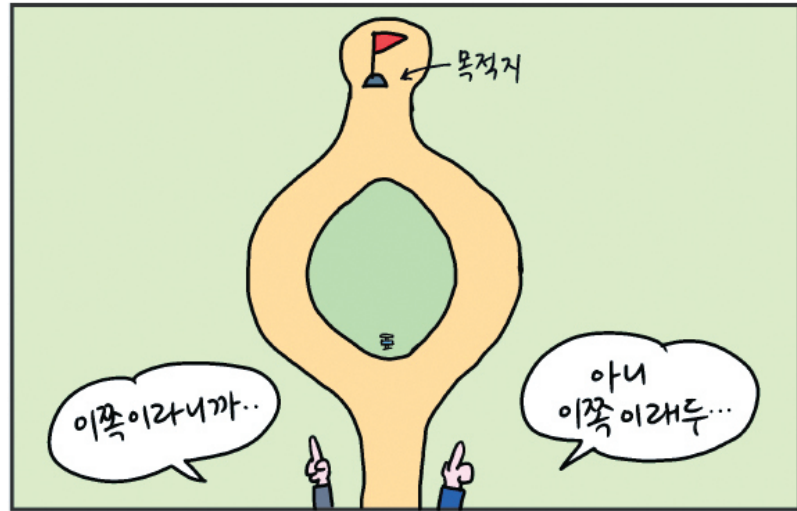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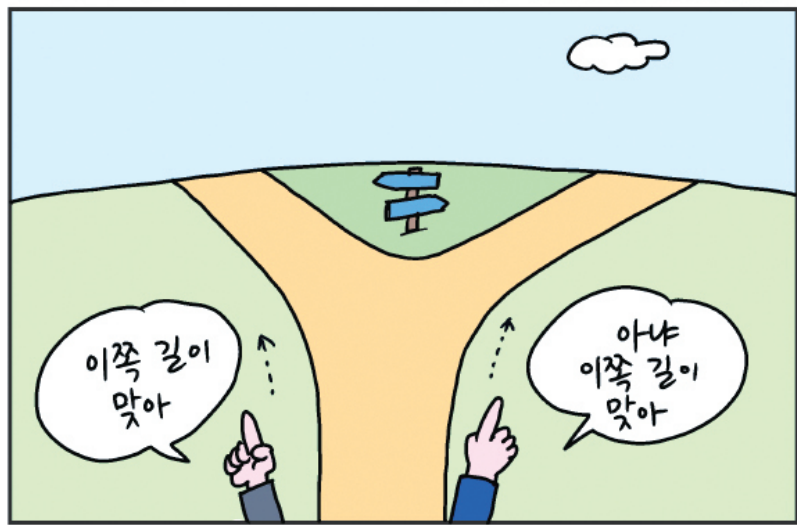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 이하 협의회) 소속 ‘착한미용실 이·미용봉사단’(단장 송정옥, 이하 봉사단)은 청주미용학원 소속 단원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시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정기적인 봉사를 진행하며 이용자들의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4월 22일 방영된 KBS ‘지금 충북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사단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렇게 꾸준한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 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갈림길

이창신 www.bokmani.com



우린 가끔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곤 합니다.

[푸르메재단, 2026 상미당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이하(2008년 1월 1일 생~)의 장애어린이 · 청소년(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 신청기간: ~2026. 5. 8.(금)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참고: <https://purme.org/board/notice>

[GKL사회공헌재단, 2026 GKL과 함께하는 행복여행(아동) 참여기관 모집]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6학년 아동(기관당 아동 15명, 인솔자 2명)
- *전년도 ‘GKL과 함께하는 꿈을 찾는 행복여행’ 사업 참여 기관 제외
- 주요내용
 - 1박 2일 진로 체험 여행(13개 기관 지원)
 - 당일형 진로 체험 여행(3개 기관 지원)
- 신청기간: ~2026. 5. 8.(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고: <http://www.gklfund.org/gklf/main/main.php>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협선터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력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 *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 용품을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형 체험(불규칙 바닥로, 경사코스 등)

복지정보 제공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www/index.do>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자금 숲체험 · 교육 지원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금 숲체험 · 교육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 · 숙박형 숲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043-285-0102)
-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하트하트 재단, 2026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공통) 의료 ·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 ·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내 아동 · 청소년 가정 / (의료비) 만 18세 이하 긴급수술 필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
- 지원내용: 의료비-연간 최대 200만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 사업기간: 2026. 1. 1. ~ 11. 30.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접수(사회복지기관 또는 병원 등 기관을 통해 신청)
- 참고: www.heart-heart.org

[말말복지재단, 2026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대상: 치료비 부담으로 수술(치료)를 중단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화상환자(가족)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피부이식, 흉터, 성형/재건, 피부 재활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수술비
 - 지원 금액: 최소 500만원 이상(사례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참고: <https://www.withgo.or.kr/index.do>

[한국전력 충북본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비용 지원(시설당 1600만원)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록된 에너지 효율 1등급 고효율 냉방기, 난난방기, 멀티히트 펌프시스템 실외기 3개 품목
- 신청기간: ~2026. 12. 18.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룬 및 작성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 참고: online.kepco.co.kr

[KBS강태원복지재단, 2026 위7기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G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양육비
- 신청기간: 월 1회(1일~15일)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참고: www.kbsktw.com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234-0840

▶ 멘토링 지원사업 멘토 봉사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295-2505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212-9194

▶ 아동 학습 및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266-4761

▶ 구강관리 의사서비스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275-7411

▶ 무료 경로식당 봉사자

관리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 644-2980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5.1~5.31.
전화번호: 043-846-2253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센스있게 딱!

18세 유권자가 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월 3일(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5월 29일(금) ~ 30일(토)
투 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처음하는 투표!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전투표 방법 알아보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사전 선거인
자신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권외 선거인
권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사명 인력

2. **권내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권외투표소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회송 봉투는 투표용지 4장(투표용지 1장, 회송용 봉투 3장)과 회송용 봉투를 추가 제공합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습니다.
*투표지에는 본인 투표용지 4장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접습니다.

4. **권내 투표용지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권외투표소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선거일 투표방법 알아보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지정된 투표소는 투표안내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사명/날인/손도장)

2. **권내 투표용지 1장을 받습니다.**
*회송 봉투는 본인 투표용지 1장과 회송용 봉투를 추가 제공합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4. **권내 투표용지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권외투표소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5.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